

# “以羊易之”와 “易之以羊”

韓 學 重\*

<目 次>

I. 문제의 제기	IV. 두 가지 문형의 활용
II. 논의의 요점과 의미 차이	V. 맺는 말
III. ‘以’의 詞性和 통사분석	

##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古代漢語에서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의 위치에 따른 두 가지 문형에 대한 존재가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의 위치에 따른 두 가지 문형이란, 《孟子》에 보이는 ‘以羊易之’와 ‘易之以羊’과 같은 경우로서, 전자는 ‘以’결구가 동사구에 전치하는 ‘以np-VP’ 구조를 취하고, 후자는 ‘以’결구가 동사구에 후치하는 ‘VP-以np’ 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以’가 동사구의 앞과 뒤에 함께 놓임으로써 동일 명제에 대해 상이한 두 가지 문형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형에 대한 분포도는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러 이미 심한 불균형상태를 이루었는데, 《孟子》의 경우 전치식은 168회, 후치식은 63회로서, ‘VP-以np’ 구조를 보이는 후치식은 전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27% 정도를 보일 뿐이다.<sup>1)</sup> 殷墟甲骨刻辭에서 동사로만 사용되던 ‘以’

\* 永進專門大學 中國語科

가 介詞로 전성되었고, 계속해서 虛化의 길로 나아갔다면, 아울러 후치식이 전치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출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면, 춘추전국 시기만 해도 ‘以’가 후치하는 ‘VP-以np’ 형태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서 소멸 직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어법서가 후치식을 전치식의 부대형식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견해는 후치식이 전치식에 비해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 들수록, 그 존재가 보이는 출현분포도가 미미하면 할수록, 그 와중에서 일시에 소멸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만의 존재는 분명 어떤 측면에서든 깊이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언어변화의 대체제가 그것을 외면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지니고 있었음을 아울러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以’의 후치식이 갖는 고유의 존재가치로 인식하며, 나아가 그것은 어순과 긴밀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구조적인 차이만 제시하였을 뿐, 의미상의 구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급이 없었다.<sup>2)</sup> 다만 후에 부분적으로 劉景農의 側重說,<sup>3)</sup> 魯國堯의 調節論<sup>4)</sup>과 같이, 이것은 의미상황이나 언어환경과 관련된다는

- 1)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1998-1) 5쪽.
- 2) 馬建忠著, 章錫琛校注, 《馬氏文通校注》, (臺北, 世界書局, 1979) 439-441쪽.  
‘以’介字也, 聯綴實字也. …… 其司名字者, 先於所繫動字者常也, 而爲義不一. …… ‘以’字司詞概先動字, 其有後乎其他動字者, 則司詞長, 不則語意未絕也.  
史封禪書: 天子以他縣償之. — ‘以他縣轉詞, 所用以‘償’者也. ‘之’其止詞, 代字也. 而不曰‘償之以他縣’者, 此乃繁句, 不若前引諸句, 皆在段中故也. 且文無定法, 先後在所驅遣耳.(257쪽)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臺北, 文史哲出版社), 49-50쪽.  
這類(憑藉)補詞的關係詞文言用‘以’. 在文言裏, 憑藉補詞的位置可以在動詞前, 也可以在動詞後.
- 3) 劉景農, 《漢語語法史》, (北京, 中華書局, 1998), 280쪽.  
介詞結構“以……”既可以用在動詞前做狀語, 也可以用在動詞後做補語. 但做狀語和補語的作用有不同. 大抵用做狀語時, 述說的重點是在動詞上; 若做補語, 就側重在介詞的賓語.
- 4) 魯國堯, <《孟子》“以羊易之”·“易之以羊”兩種結構類型的對比研究>, (《先秦

견해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명제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어순의 존재가치와 근원적인 발생연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의 두 가지 문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以’의 詞性은 모두 介詞이다.
- (2) ‘以’ 개사구는 동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충당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위치하여 보어로 충당될 수도 있다.
- (3) ‘以’자구는 대개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개사목적어가 길거나, 뜻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 동사구에 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일정한 법칙은 없다.
- (4) 以결구가 부사어와 보어로 충당될 때의 작용은 서로 다르다. 대체로 부사어로 충당될 때는 서술의 중점이 동사에 있으나, 보어로 충당되면 중점은 개사의 목적어에 있다.
- (5) 언어는 의미사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개별결구의 형식 특징에 근거하여, 그것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절, 선택됨으로써 조화의 실현을 구가한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이에 관한 설명들이 시도되었으나,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를 보이는 이들 두 가지 문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동일한 명제에 대한 이들 두 가지 어순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이처럼 상이한 어순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본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漢語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4), 291 쪽.

語言爲了更好地表達思想, 根據各個結句的形式特點, 對他們自動調節選擇, 以求協調和諧的體現.

## II. 논의의 요점과 의미 차이

이에 관한 논의의 첫 단계로, 우리는 동일한 명제에 대한 이들 두 가지 문형이 함께 출현하는 《孟子》〈梁惠王上〉篇의 齊宣王과 孟子的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 莫之能禦也.”

曰, “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龔, 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饋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王曰, “然, 誠有百姓者. 齊國雖編小, 吾何愛一牛? 即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제선왕이) 말하기를, “德이 어떠해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왕노릇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 같은 자도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臣이 胡龔에게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王이 堂 위에 앉아 있는데, 소를 끌고서 堂下를 지나는 자가 있었답니다. 王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대답하여 말하

기를, ‘**罽鐘**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버려라! 내가 그것이 별별 떨면서 죄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겠노라.’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罽鐘**을 그만두리이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만두겠는가? **양으로써 그것을 바꾸라**’고 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선왕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면 죽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이 아간다고 여깁니다만, 신은 진실로 왕께서 참지 못하심을 압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곧 그것이 별별 떨면서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래서 **양으로써 그것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었으니, 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그것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셨다면, 소와 양은 어떻게 가리셨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고? 내가 그 재물을 아껴서 **그것을 바꾸되 양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백성들이 나를 보고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의 齊宣王과 孟子的 대화는 동일한 명제에 대한 두 가지 문형, 곧 ‘以 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를 함께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담화이다. 이 대화에 보이는 “以羊易之”와 “易之以羊”은 바로 “양을 가지고 소를 바꾼다”는 동일한 명제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표현형태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를 지고 있는가? 이들 두 문형이 어떤 형태든 의미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가지는 일차적인 존재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생각은 이들 문장이 표현이 다른 만큼 각각의 표현이 갖는 의미 또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앞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以羊易之”와 “易之以羊”은 직감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를 지

니는 것으로 지적된다. 바로 “以羊易之”에서는 “바꿈”을 강조하고, “易之以羊”에서는 “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앞뒤 문맥이 “소가 벌벌 떨면서 죄없이 죽음터로 가는 상황”에서 “소가 불쌍하여 차마 보지 못한 나머지 소를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다만 그것을 대체한 것이 양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후자는 “소가 불쌍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면, 하필이면 ‘羊이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齊宣王은 “단순히 재물을 아끼기 위해 소 대신 양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以羊易之”에서는 “易之”가 강조되었고, “易之以羊”에서는 “以羊”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劉景農의 側重說이 일정부분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側重說은 孟子와 許子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의 대화를 보면, 이러한 의미 차이가 반드시 ‘以’의 위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許子冠乎?” 曰, “冠”

曰, “奚冠?” 曰, “冠素.”

曰, “自織之與?” 曰, “否, 以粟易之.”

曰, “許子奚爲不自織?” 曰, “害於耕.”

曰, “許子以釜餽爨, 以鐵耕乎?” 曰, “然.”

“自爲之與?” 曰, “否, 以粟易之.” (《孟子》〈滕文公上〉)

“許子は 冠 을 쓰는가?” “쓴다.”

“어떤 冠인가?” “冠은 흰 명주로 된 것이다.”

“손수 그것을 짜는가?” “아니다, 곡식으로써 그것을 바꾼다.”

“許子は 어찌 손수 짜지 않는가?” “농사짓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許子は 솥과 시루로 불때어 밥짓고, 쟁기로 밭을 가는가?” “그렇다.”

“손수 그것들을 만드는가?” “아니다, 곡식으로써 그것을 바꾼다.”

위의 대화를 또한 면밀히 살펴보면, 孟子의 물음 “許子以釜餽爨, 以鐵耕乎?”에서 孟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以釜餽’과 ‘以鐵’이라는 것이 분명

해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許子의 두 차례에 걸친 대답 “否 以粟易之”에서는 도리어 ‘易之’가 강조되고 있다.<sup>5)</sup> 孟子와 許子 사이에 행해진 이 대화는 “以羊易之” 및 “易之以羊”과 같은 문형에서, 부분적으로, 의미의 강조가 ‘以’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앞뒤 문맥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여기게 할는지 모른다.<sup>6)</sup>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以’의 전치식이 강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以’의 후치식이 의미의 중점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以’의 전치식과 후치식이 혼용된 경우, 그 둘의 명확한 차이는 의미의 중점 소재를 달리한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의 제반 현상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규범화할 때, 보편적 분포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일종의 철칙으로 여긴다. 그러한 보편성이 불특정 소수에 의해 부정된다면, 언어에 대한 규범화 작업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요원한 길이 될는지 모른다. 우리는 ‘以’의 위치에 따른 의미 변별 문제와 관련하여, 위의 孟子와 許子의 대화를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긴다.

어떤 경우든 동일한 명제에 대한 ‘以’의 두 가지 문형은 “以羊易之”와 “易之以羊”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미상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는 의미의 중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 거의 절대적인 분포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의미의 중점과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孟子와 許子의 대화가 범례를 벗어난 것일 뿐, 孟子와 許子의 대화로 인해,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가 가지는

- 
- 5) 언뜻 생각하면, “以粟易之.”에서 강조되는 것은 ‘以粟’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손수 그것을 짜고 만드느냐?”에 대한 대답이므로, “짜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쓴다.”는 의미로 ‘바꾸다’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6) 魯國堯는 이 예문을 근거로 ‘以’의 위치에 따른 의미강조를 부정하고, 부대상황이 갖는 특수성이 의미의 중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편성 원칙이 손상될 수는 없는 것이다.

### Ⅲ. ‘以’의 詞性和 통사분석

郭錫良에 의하면, ‘以’는 殷墟甲骨刻辭 가운데에서 오직 動詞로만 사용되다가, 商周青銅器銘文에서는 動詞 36%, 介詞 58%의 분포도를 보이며 《論語》와 《孟子》 시기에 이르면 각각 動詞 5%와 介詞 75%, 動詞 3%와 介詞 75%의 분포도를 보여, 동사로의 사용은 후대로 올수록 거의 미미한 분포도를 보인다. 특히 《孟子》의 경우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의 전치식과 후치식 또한 전치식이 절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의 두 가지 문형은, 후에 漢語의 어순문제와 관련하여 점차 전치하는 방향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의 한 과도기적 현상이며, 그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존재했던 ‘以’의 두 가지 문형에 대하여, 《孟子》와 동시기에 출현하는 先秦文獻에서는 의미의 중점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의 위치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두 가지 문형이 가지는 의미상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가지 문형이 병존하던 시기에 존재했던 ‘VP-以np’ 구조에서의 ‘以’의 詞性이 介詞라는 견해를 재고한다.

동사구를 중심으로 ‘以’가 빚어내는 두 가지 문형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부분 이법서에서는 “게사 ‘以’는 동사구 앞에 놓일 수도 있고, 뒤에 놓

7) 郭錫良에 의하면, ‘以’의 출현은 다음과 같은 분포도를 보인다.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1998-1, 1-5쪽)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 500여회(총 946회)중 動詞: 100%, 介詞: 보이지 않음.  
 《商周青銅器銘文選》 53회중 動詞 19회(36%), 介詞 31회(58%), 連詞 3회  
 《論語》 207회 중 動詞 11회(5%), 介詞 156회(75%), 連詞 31회  
 《孟子》 614회 중 動詞 20회(3%), 介詞 460회(75%)전후, 連詞 66회, 기타 66회

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以’의 위치는 매우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개사 ‘與’나 ‘乎’ 등과 비교할 때, 확실히 ‘以’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以’의 위치가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지 못한 개사와 어떤 식이든 본래의 의미와 詞性變化의 영활성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以’의 詞性은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곧 이들 문형이 갖는 의미의 중점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 것으로 추정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어 특히 고대한어의 개사는 열에 아홉이 동사로부터 전성되었다고 간주한다.<sup>8)</sup> 개사가 동사에서 전성되었다면, 그것이 동사성을 지니고 있을 것임은 당연하며, 또한 동사로 되돌려 사용될 수 있음도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현대한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我一般吃在學校、住在學校，星期六下午回家。  
 我學到了不少知識。  
 他把水果送到廚房了。  
 你先借給我書，明天還你行嗎？  
 昨晚你打電話給我，有什么重要的事情？

위의 예에서 ‘在’, ‘到’, ‘給’ 등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여전히 동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동일한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의 존재만을 중시한 나머지, 개사로서 동사의 앞뒤에 위치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는 모두 개사로서 보어로 충당되었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개사들 가운데에서 유독 이들만이 동사의 후면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리의 견해는 이들이 보어로 충당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서 보어로 충당되었

8) ‘於, 于, 乎’ 등이 순수개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乎’를 제외하면 이들도 동사로 사용된 경우가 없지 않다.

다는 것이다.<sup>9)</sup> 여기에서 이들을 굳이 동사라고 여기는 것은 이들이 동사와 개사로의 전용이 자유로운데다, 이 경우 이들은 명확하게 동사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한어에 있어서 개사는 통상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이며, 그것은 또한 단독으로 부사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닌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개사의 속성을 벗어나는 경우, 그것이 비록 개사로서의 사용이 적지 않은 분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것들은 동사로 작용한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한어에 있어서 고대와 현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언어특성 중의 하나이다.

고대한어에서 ‘以’는 춘추전국시기까지 여전히 동사와 개사로 병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以’는 완벽하게 동사임을 보여준다.

立適以長 不以賢 立子以貴 不以長 《公羊傳 隱公元年》

적자를 세우는 것은 나이로 하지 어짐으로 하지 않으며, 자식을 세우는 것은 귀함으로 하지 나이로 하지 않는다.

위의 ‘立適以長’과 ‘立子以貴’에서 ‘以’를 개사로 여길 수 없음은 뒤에 ‘不以賢’과 ‘不以長’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를 접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以’가 동사임은 뒤의 ‘不以...’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立適以長’의 후면에 어떤 성분도 수반하지 않았다면 그 詞性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대부분의 견해는 그렇다면 ‘以’는 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구조 내에서 어떻게 詞性을 달리한다고 여길 수 있는가? ‘以’가 개사라는 기

9)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중국의 어법학자 韓志剛(天津大學) 선생과 전화통화로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데, 이들의 품사에 대해서는 介詞와 動詞라는 견해 사이에서 분분한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사로 보는 것이 옳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에 부닥치면 필시 더 이상의 답변이 곤란해지고 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동사구의 후면에 위치하는 ‘**以**’는 결코 개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시 다음의 예문을 취한다.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論語》<八佾>)

定公이 물었다. “인군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 것은 어찌 해야 합니까?”

孔子가 대답하였다. “인군이 신하를 부리는 것은 예로 하고, 신하가 인군을 섬기는 것은 충성으로 한다.”

위의 定公과 孔子의 대화에서 定公은 孔子에게 ‘君使臣, 臣事君’에 관하여 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孔子는 ‘以禮’하고 ‘以忠’하라고 답하였다. 위의 定公의 물음은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로 분석된다.

[君使臣, 臣事君,]S [如之何?]VP

즉, ‘君使臣, 臣事君’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如之何?’는 술어라는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定公의 물음 ‘如之何?’에 대한 대답으로 孔子는 단어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以禮’ ‘以忠’을 대응시켰다는 점이다. 곧 定公의 말 가운데 술어에 상당하는 ‘如之何?’와 공자의 대답 가운데 ‘以禮’ ‘以忠’은 ‘君使臣, 臣事君’이라는 주어와 함께 한 치의 다름도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以禮’ ‘以忠’이 ‘君使臣’과 ‘臣事君’에 대해 술어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君使臣以禮’이든 ‘臣事君以忠’이든 이 문장에서 ‘以禮’ ‘以忠’이 술어로 충당됨은, 앞의 定公의 물음을 감안할 때 또한 의심의 여지가 끼어들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특별히 특정의문문이라고 부른다. 특정의문문은 의문사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대화의 핵심으로 삼는 문장이다. 따라서 특정의문문의 의미중점은 당연히 의문사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定公의 물음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에서의 의미중점은 ‘如之何?’에 있음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응답문에서의 의미중점 또한 당연히 ‘以禮’ ‘以忠’에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에서 “如之何?”를 보어로 여길 수 없다면, 孔子의 대답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에서 ‘以禮’, ‘以忠’ 또한 보어로 여길 수 없을 것이다. ‘以禮’, ‘以忠’은 곧 각각 주어 ‘君使臣’과 ‘臣事君’에 대한 술어일 뿐이며, 따라서 ‘以’ 또한 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以’가 동사라는 사실은 바로 ‘以np’가 해당 문장의 의미중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VP-以np’ 구조에서 동사구 뒤에 위치하는 ‘以’결구가 그 문장의 의미중점이며, ‘以’의 품사는 또한 동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VP-以np’결구에서 ‘以’를 동사로 여기는 견해는 고대문헌의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論語》〈學而〉)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를 공경하고 신의를 보이며, 재용을 절제하고 사람을 아끼며, 백성을 부리는 것은 적당한 때로써 한다.”

‘使民以時.’에 대하여 기존의 모든 이법서와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하나같이 ‘使民’은 동사구이고, ‘以時’는 개사구로서 보어로 충당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使民’은 주어이며, ‘以時’는 술어라는 것이다. ‘以’의 詞性은 당연히 동사가 되는 것이다. 何晏의 《論語集解》에서는 ‘使民以時.’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包曰, 作使民必以其時, 不妨奪農務”(何晏《論語集解》)

包咸이 말하기를, 농사일을 진작시킴에 있어서 백성들을 부리는 것은 반드시 적당한 때로써 하여, 농사일에 힘쓰는 때를 빼앗아 방해하지 않았다.

이를 康有爲의 《論語注》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包咸曰, … 作事使民必以其時, 不妨奪農務.” 包說是也.<sup>10)</sup>

“包咸은 ……”라고 하였는데, 包說이 옳다.

包咸과 康有爲는 똑같이 “使民以時.”에서 ‘以’를 동사로 해석하고, 특별히 부사 ‘必’을 더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VP-以np’ 구조에서 VP와 ‘以np’가 다른 성분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以np’가 동사구이며, 문장의 술어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VP-以np’ 구조에서 ‘以’가 동사일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가 아니어도, ‘VP-以np’에서 ‘以’가 동사라는 근거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先秦散文에서 비록 ‘VP-以np’ 형태가 ‘以np-VP’ 형태에 비해 분포상의 열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것은 어순변화의 한 과정에서 일어난 과도기적 현상일 것임도 분명하지만, 이들 두 가지 형태가 병존했던 일정기간 동안, 이들은 각각 고유의 존재가치를 가질 것이 분명하며, 그것은 ‘VP-以np’에서 ‘以’가 동사로 규정될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확인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쩌면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는 ‘以’의 詞性を 두고, 이를 굳이 동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동사일 때만 ‘VP-以np’ 형태를 취하는 문장이 합리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왜 ‘以np’가 강조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사는 동사와 똑같이 동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의 비중은 부분적으로 동사보다 약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

10) 康有爲, 《論語注》(北京, 中華書局, 1984), 6쪽.

한 현상은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집에 있다. + 그는 책을 본다. → 그는 **집에서** 책을 본다.

(他在家 + 他看書 → 他在家看書.)

칼을 쓴다. + 연필을 깎는다. → 칼을 써서(→**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用刀子 + 削鉛筆 → 用刀子削鉛筆.)

단문에서 동사로 존재하던 ‘있다’와 ‘사용하다’ 따위의 말들은 또 다른 단문과 합성문을 이룰 때, 그것은 다른 동사와의 충돌로 인해 그것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동사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虛詞化되고, 그것의 문장성분 또한 부사어라는 동사구의 부대성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있다(在/於), 사용하다(用/以), 주다(給)’ 따위와 같은 몇몇 동사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한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以’는 바로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어휘인 것이다.

동사가 개사보다 의미의 중점이 강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易之以羊”의 경우 ‘以’가 동사라는 사실은 앞의 ‘易之’에 비해 후면의 ‘以羊’에 의미의 중점이 놓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우리가 동사구를 문장의 주성분으로 분류하고, 개사구를 부대성분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이 점에 있을 것이다.

“易之以羊”과 같은 ‘VP-以np’ 구조에서 ‘以’를 동사로 여기고 ‘以np’ 절구를 술어로 여긴다면, 앞의 ‘易之’와 같은 동사구(VP)를 주어로 간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대한어의 형태변화의 영활성에서 찾는다. 주지하다시피, 고대한어에 있어서 특정 단어나 동사구, 문장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총당되는데는 외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분석어로서의 漢語가 갖는 또 하나의 언어학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다시 앞의 定公과 孟子의 대화를 보기로 한다.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論語》<八佾>)

위의 예문 定公의 물음에서 주어는 ‘君使臣, 臣事君’이며, 술어는 ‘如之何?’이다. ‘如之何?’는 분명 앞의 ‘使臣’이나 ‘事君’의 방법을 묻는 말이지만, 결코 보어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로 나타난다.

[[[君]n[使臣]vp]s', [[臣]n[事君]vp]s']s, [如之何]VP]S

[[[君]n[使臣]vp]s'[以禮.]vp]s1 [[臣]n[事君]vp]s'[以忠.]vp]s2]S

위의 구절구조는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와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이 각각의 문장성분이 어떻게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는지를 보여준다. 곧,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는 ‘君使臣, 臣事君’이 각각 선행 결합을 이루어 주어로 충당된 후, 뒤의 술어 ‘如之何?’와 최종결합을 이루어 전체 문장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또한 각각의 소문장 ‘君使臣以禮’와 ‘臣事君以忠’이 각각 독립 문장을 이룬 뒤, 재결합되어 전체 문장을 이룬다. 첫 번째 속문장 ‘君使臣以禮’는 명사 ‘君’과 동사구 ‘使臣’이 먼저 ‘君使臣’으로 결합되어, 문장형식으로서 술어 ‘以禮’의 주어로 작용하며, 술어 ‘以禮’는 또 동사 ‘以’와 목적어 禮가 결합되어 동사구로서 ‘君使臣’에 대해 술어로 충당된다. 두 번째 속문장 ‘臣事君以忠.’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외견상 ‘VP-以np’ 형태로 보이는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에서 ‘以禮’와 ‘以忠.’은 선행하는 동사구 ‘使臣’ 및 ‘事君’과 먼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使臣’과 ‘事君’이 앞의 명사 ‘君’과 ‘臣’과의 선행결합을 이룬 뒤, 전체 문장의 주어로 충당된 ‘君使臣’과 ‘臣事君’과 최종결합을 이루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VP-以np’ 구조에서 ‘VP’와 ‘以np’는 술어와 보어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술어라는 전혀 별개의 성분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더

욱 명확해질 수 있다.

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不能通其意. (韓愈, <雜說四>)

채찍질을 하되 그 도로 하지 아니하고, 먹이되 그 양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울리되 그 뜻을 통하지 못하게 한다.

위의 예문은 ‘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不能通其意.’라는 세 개의 속문장이 병렬연결된 복문으로서, 각각의 속문장에서 ‘策之’, ‘食之’, ‘鳴之’는 모두 동사구 형태의 문장형식으로서 주어로 충당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不以其道’, ‘不能盡其材’, ‘不能通其意.’는 각각 동사구로서 술어로 충당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策之不以其道’의 경우, ‘策之’와 ‘不以其道’라는 두 개의 행위에서 ‘策之’라는 행위를 먼저 전제한 후, 그 행위에 대한 방법으로 ‘不以其道’를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策之不以其道’에서 ‘不以其道’는 결코 ‘策之’의 보어[보충어]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사구조는 계속되는 ‘食之不能盡其材’와 ‘鳴之不能通其意’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不以其道’와 ‘不能盡其材’와 ‘不能通其意.’는 모두 동일한 문장성분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策之不以其道’에서 ‘以’가 동사로 충당됨은 ‘不’의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策之不以其道’와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魯國堯은 ‘以’의 후치식에는 부정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以np-VP’와 ‘VP-以np’ 구조는 동일한 명제의 서로 다른 두 결구방식이다. 우리는 왜 많은 학자들이 ‘VP-不-以np’에서 ‘以’는 동사로 여기면서, ‘VP-以np’에서 ‘以’는 동사로 여기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VP-不-以np’에서 ‘以’가 정말 동사라면, ‘VP-以np’에서 ‘以’는 동사로 볼 수 없는가? 아울러 모든 표현이, 상황에 따라, 부정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sup>12)</sup> ‘以np-VP’

11) 魯國堯, 앞의 논문, 281쪽.

12)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와 같은 문장은 논리적으로

구조와 달리 ‘VP-以np’ 구조가 부정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VP-以np’와 ‘VP-不-以np’ 결구를 왜 같은 방식의 긍정과 부정 형태로 여기지는 못하는가?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VP-ad-以np’ 형태에서 ‘不, 必, 亦’ 등의 부사들이 ‘以’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以’는 동사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VP-ad-以np’ 결구에서 ‘VP’는 주어가 되고, ‘以np’는 술어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VP-以np’를 ‘VP-不-以np’의 긍정형태로 여겨, ‘以’를 똑같이 동사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VP-以np’ 구조에서 ‘以’가 동사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시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敢問招虞人何以? (《孟子》〈滕文公上〉)

감히 여쭙니다만, 虞人을 부르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위의 예문은 ‘VP-以np’ 구조를 보이는 ‘招虞人何以’가 동사구 ‘敢問’의 목적어로 충당된 경우이다. 여기에서 ‘以np’결구인 ‘何以’가 ‘何以’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np인 ‘何’의 성격에 기인한다. 즉, ‘何’는 의문대명사로서 특징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以’에 선행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고대한어 전반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고대한어에서 의문대명사가 개사의 목적어로 충당되어 개사결구를 이룰 때, 원인이나 방법, 상황을 묻는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는 것 또한 고대한어의 일반적인 언어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에서 ‘何以’가 동사구 ‘招虞人’ 앞으로 전치하지 않은 것은, ‘何以’가 ‘招虞人’에 대해 술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것은 상대적으로 ‘何以’가 문장의 의미중점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以’는 개사가 아닌 동사로서 ‘何’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다. ‘何以’는 바로 ‘招虞人’이라는 행위를 전제한 뒤, 그 행위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식을 취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상황에서 ‘以’의 詞性이 동사로 환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이 경우 ‘以’는 개사가 아닌 동사로서 문장의 술어로 충당되는 것이다.

魯國堯는 위의 예문에서 ‘以’결구 ‘何以’가 동사구에 후행하는 것은 이들이 ‘敢問’의 목적어로 충당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敢問’의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敢問과 같은 동사구의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은 수많은 ‘VP-以np’ 형태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리라 믿는다.

#### IV. 두 가지 문형의 활용

우리는 앞에서 이미 ‘VP-以np’ 형태를 보이는 문장과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갖기는 하였지만, 이제 다시 ‘VP-以np’가 전체 담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VP-以np’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로 한다.

‘VP-以np’ 결구는 엄밀하게 말하면, ‘VP’와 ‘以np’라는 두 개의 행위로 구성된다. 이들 두 개의 행위는 각각 독립된 것으로 어느 것도 어느 것에 부대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VP-以np’ 구조는 ‘以np-VP’ 구조와 차원을 달리한다. 말하자면, ‘以np’는 개사구로서 동사구 앞에도 위치할 수 있고 뒤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以np’는 개사구로서 동사구 앞에 위치하지만, 동사구 뒤에 위치하는 경우 그것은 개사결구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행위로서 동사구로 존재하며, 동사구의 자격으로 술어로 충당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경우 ‘以’는 동사로서 뒤에 수반하는 목적어와 함께 문장의 의미 중점이라는 화용적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VP’를 중심으로 한 ‘以np’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담화의 의미중점과 관련되어 어순이 결정되는데, 이 때 어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들 담화 속에 펼쳐지는 상황과 맥락이다. 즉, ‘VP’와 ‘以

np'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VP'가 가지는 행위가 선행사실로 전제되면, 이들은 'VP-以np' 구조를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以np-VP'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시되는 두 개의 상황 중 어느 것이 선행담화에서 제시되었느냐, 또는 어느 것을 전제함으로써 화제로 삼느냐에 따라 '以np-VP' 구조를 취하느냐 'VP-以np' 구조를 취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魯國堯가 말한 조절론을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황의 전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순 결정이 어떤 사실에 대한 전제가 아니라, 언어가 의미를 더욱 좋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 결구의 형식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그들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함으로써 조화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점에서 우리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 “동사 뒤에 다른 보어가 위치할 때 ‘以’결구는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동일한 목적어를 갖는 동사는 서로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以’결구는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魯國堯의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 행위의 전제와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설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면하면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즉, “易之以羊”과 “以羊易之”의 경우처럼 동사 뒤에 다른 보어가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두 개의 어순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절론이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언어의 규칙으로 규범화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 어법연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왜 그렇게 조절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에 대한 두 가지의 어순이 어떻게 전제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을 취한다.

入其疆，土地辟，田野治，養老尊賢，俊傑在位，則有慶，慶以地。（《孟子》  
〈告子下〉）

그 봉지에 들어가 보아, 토지가 개척되어 있고, 농토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늙은이를 잘 봉양하고 어진이를 존경하며 뛰어난 인물들이 재위에

있으면 상을 주었는데, 상을 주는 것은 땅으로 하였다.

위의 예에서 마지막 문장 “慶以地”는 분명히 두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慶’(상을 준다)이고, 다른 하나는 ‘以地’(땅으로 하다)이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상호 결합하여 하나의 명제를 이룬다. 그러나 이 하나의 명제에 대한 언어표현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以地慶”(땅으로 상을 준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慶以地”(상을 주되 땅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이들 각각의 표현에 대한 한국어 표현은 거의 하나로 귀착된다. 곧 “땅으로 상을 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以地慶.”이나 “慶以地.”는 한국어적 표현으로는 일견 의미상 특별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의 표현방식으로 한국어의 문제일 뿐, 고대한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한어의 경우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고대한어에서는 이 두 경우의 의미를 크게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한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표현 가운데에서, 위의 담화에 “慶以地”가 선택된 것은 바로 앞에 “... 則有慶”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有慶’이라는 상황이 앞에서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잇는 다음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앞에 제시된 상황을 먼저 전제하는 것이다. 곧 ‘慶’(상을 준다)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뒤 이에 대한 방법으로 ‘以地’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곧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바로 ‘以’의 詞性이 동사와 개사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영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魯國堯는 이들의 어순 결정을 조절론으로 설명하였으나, 엄밀하게 보면 이들은 모두 전제와 진술, 곧 설명이라는 상관관계에 기인한다. 이는 ‘VP-以np’ 구조를 취하는 다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曰, “嫂溺 則援之以手乎?”

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 援之以手者, 權也.”

曰, “今天下溺矣, 夫子之不援, 何也?”

曰, “天下溺, 援之以道, 嫂溺 援之以手, 子欲手援天下乎?” (《孟子》

<離婁上>)

형수가 물에 빠지면, 그를 건짐에 손으로 합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지지 않는다면, 이는 豺狼이다. 남녀가 주고받음에 접촉하지 않는 것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짐에 손으로 하는 것은 權道이다.

이제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도, 선생님께서 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천하가 물에 빠졌으면, 그것을 건짐은 도로써 하고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그를 건짐은 손으로 하는 것이니,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건지려 하는가?

위에 보이는 ‘援之以手’와 ‘援之以道’는 또한 각각 ‘援之’와 ‘以手’, ‘援之’와 ‘以道’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같이 ‘VP-以np’ 구조를 취한 것은 모두 앞에 ‘溺(물에 빠지다)’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溺’한 상태라면, 건져야 하는 사실 자체와 건질 때 쓰는 방법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며, 다음 단계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援之’(그것을 건지다)라는 행위일 것이다. ‘援之’하는 방법으로서의 ‘以手’와 ‘以道’는 ‘援之’가 전제되고 난 뒤에 행해지는 설명일 뿐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들이 ‘VP-以np’ 구조를 선택한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이들이 ‘VP-以np’ 구조를 취할 수 있음은 또한 ‘以’의 詞性이 동사일 수 있다는 영합성에 기인한다. 다시 다음의 경우를 동일한 예문으로 취한다.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孟子》< 梁惠王下>)

옛날 太王이 邠에 살 때, 狄人들이 그곳을 침략했었다. 그들을 섬김을 皮幣로 했어도 (침략을) 면하지 못했고, 그들을 섬김을 犬馬로 했어도 면

하지 못했으며, 그들을 섬김을 珠玉으로 했어도 면하지 못하였다.<sup>13)</sup>

위의 예문에서 ‘事之以皮幣’, ‘事之以犬馬’, ‘事之以珠玉’ 또한 각각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VP- 以np’ 구조를 취하게 된 것은 앞에 ‘狄人’이 제시된 상태에서 ‘事之’(이들을 섬긴다)라는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以np’는 전제된 행위 ‘事之’가 필요로 하는 방법일 뿐이다. 다음의 경우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五畝之宅，樹牆下以桑，匹婦蠶之，則老者足以衣帛矣。(《孟子》<盡心上>)

다섯 畝의 택지, 그 담장 아래에 심는 것을 뽕나무로 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나무를 심을 곳과 심을 나무의 종류가 함께 제시되는 상황에서, 앞에 장소가 제시되었다면 그 곳에 심을 것(樹之)을 미리 전제한 다음 심을 나무의 종류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조절론이라고 한다면, 동사의 목적어나 개사의 목적어의 길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그것은 결코 언어표현의 근본적인 원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순 결정의 이러한 원칙은 ‘以 np-VP’ 구조를 보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孟子對曰，“王好戰，請以戰喻。(《孟子》<梁惠王上>)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서 비유하겠습니다.”

13) 원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 “그들을 섬김을 皮幣로 했어도 (침략을) 면하지 못했고”에서 ‘그들을 섬김을’로 표현되는 것은 또한 한국어의 표현방식일 뿐이다. 원문의 문장구조를 살려 표현한다면, ‘그들을 섬김은 皮幣로 한다’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한국어식 표현이 아니다. 이들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고대한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이 다른 데에 기인한다.

曰, “周公使管叔監殷, 管叔以殷畔, 知而使之, 是不仁也 (《孟子》×公孫丑下>)

“周公이 管叔으로 하여금 殷을 감독케 하였는데, 管叔은 殷을 가지고 모반을 하였다. 알고서 그를 시켰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以戰諭’와 ‘以殷畔’ 또한 각각 두 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以戰諭’는 앞에 ‘王好戰’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고, ‘以殷畔’은 앞에 ‘周公使管叔監殷’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 제시를 바탕으로 다음 말이 전개되는 것이라면, 제시된 상황을 먼저 전제하고, 전제한 사실에 대한 보완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언어표현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것이다. 이들이 ‘VP-以np’ 구조를 취하지 않고, ‘以np-VP’ 구조를 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와 설명이라는 언어 표현의 보편적 원리에 기초한다.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로의 어순 결정이 선행사실에 대한 행위의 전제와 관련된다고 할 때, 앞의 경우처럼 선행담화에서 어느 하나만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행담화에서 두 개의 행위가 모두 제시되었다면 두 개의 문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면,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로의 어순 결정이 담화의 상황맥락과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우리의 견해는 더욱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곧 화자가 중시하고자 하는 의미의 중점과 긴밀하게 관련될 것이다. 앞의 孟子와 齊宣王의 대화에 보이는 ‘以羊易之’와 ‘易之以羊’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가 갖는 이러한 어순 현상도, 언어 발전과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언어가 지향하는 효율성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크게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원칙과 언어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문형은 언어표현이 효율성을 지향하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 ‘以’가 동사에서 개사로 전성되는 한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현상이며, 일정기간 동안 두 가지 어순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음은 곧 ‘以’가 動詞에서 介詞로 변천했다는 虛化現象

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견해는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의 두 가지 문형 —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가 일정기간 동안 동시병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과도기라는 일정기간 동안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의미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문장의 의미중점 소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중점은 또한 ‘以’가 動詞와 介詞라는 두 개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詞性變化의 영활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문형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언어환경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선택되고 활용되었으며, 그것은 곧 두 개의 행위가 주어와 술어라는 독립된 성분으로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전제와 설명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일 뿐이다.

## V.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 ‘以’결구가 빚어내는 두 가지 문형에 대하여, 의미중점의 소재 여부, ‘以’의 詞性和 통사분석, 담화 가운데에서의 활용 등을 통하여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가 가지는 존재가치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以羊易之”와 “易之以羊”과 같은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는 전체적으로 어순변화라는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난 과도기적 언어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그러한 어순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상당기간 병존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고유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孟子》에 보이는 “以羊易之”와 “易之以羊”의 경우에서와 같이 담화 가운데에서 상황과 맥락이라는 언어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의미의 중점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는 동일한 명제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방식이며, ‘以np-VP’ 구조에서

‘以np’는 부사어로 충당되는 반면, ‘VP-以np’ 구조에서 ‘以np’는 술어로 충당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易之以羊”과 같은 ‘VP-以np’ 구조는 ‘以np’ 절구가 동사구인 VP의 보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VP가 갖는 행위의 전제 하에 그것을 진술 설명하는 술어로서, 독립된 문장성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以’의 품사는 동사로 여겨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문형이 긍정일 경우 두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전제하느냐의 차이밖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구별이 모호하지만, 이 문형에 대한 부정 형태는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以np-VP’ 구조에 대한 부정형태인 ‘不-以np-VP’ 절구에서는 ‘以np’와 VP가 갖는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제공하지 않지만, ‘VP-以np’ 구조의 부정형태인 ‘VP-不-以np’ 절구는 VP가 제시하는 행위만은 완벽하게 수행된다는 것이다. 다만 방법적으로 ‘以np’가 제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VP-不-以np’ 절구에서 ‘以’를 동사로 여겨야 한다면, ‘VP-以np’ 절구에서 ‘以’ 또한 동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以’가 동사라면, ‘VP-以np’ 절구에서 ‘np’가 강조된다는 사실 또한 더불어 자명한 것이다.

‘以np-VP’ 구조와 ‘VP-以np’ 구조가 선택되는 과정은 담화 가운데 제시되는 상황과 맥락으로, 바로 선행담화에서 제시되는 행위의 전제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곧 VP와 ‘以np’가 제시하는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선행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느냐가 그 문장의 어순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언어란 화자와 청자가 상호 인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하게 되며, 이것은 언어가 지향하는 상호간의 의사전달을 순조롭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以’와 관련한 두 가지 문형은 상대에게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고 인식시켜나갈 것인지를 기본 바탕으로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것부터 말하게 되는 과정에서 산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곧 VP와 ‘以np’가 산생시키는 두 가지 어순은 전제와 설명이라는 대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언어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언어표

현이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전체적인 추이를 따라 ‘以np-VP’ 구조가 보편적으로 선택되고, ‘VP-以np’ 구조가 도태되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以np-VP’ 구조에서의 ‘以’와 ‘VP-以np’ 구조에서의 ‘以’가 성격상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以’는 여전히 詞性變化와 관련하여 변화와 본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두 가지 어순은 일정기간이나마 동시병존할 수 있었으며, 동시병존하는 동안 그것은 주어와 술어로서 전체 설명이라는 또 다른 언어표현의 한 방식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VP-以np’ 결구를 주술구조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以np’를 보어로 여기는 기존의 견해를 재고하자는 것이다. ‘VP-以np’ 결구는 결코 ‘以np-VP’ 결구에 대한 우연적인 부산물이 아니며, 그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VP가 수행하는 행위를 먼저 전제한다는 깊은 의중이 가미된 또 다른 언어표현의 한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만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포나마 생명력을 유지했던 ‘VP-以np’ 결구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 < 參考文獻 >

- 康有爲, 《論語注》, 北京, 中華書局, 1984
- 戈弋, <把字句(處置式)的起源>, 《中國語文》1958-3, 北京, 中國語文編輯委員會, 117-118
-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1998-1, 1-5쪽
- 魯國堯, <《孟子》“以羊易之”·“易之以羊”兩種結構類型的對比研究>, 《先秦漢語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4, 274-293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
- 馬建忠著, 章錫琛校注, 《馬氏文通校注》, 臺北, 世界書局, 1979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 呂叔湘,《文言虛字》,臺北,開明書店,1979
- 呂叔湘,《中國文法要略》,臺北,文史哲出版社,1975
- 呂叔湘·王海棻,《馬氏文通讀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1986
- 易孟醇,《先秦語法》,長沙,湖南教育出版社,1989
- 王力,《漢語語法史》,北京,商務印書館,1989
- 劉世儒,〈“把”和“以”〉,《中國語文》1960-4,北京,中國語文編輯委員會  
172-173
- 劉景農,《漢語語法史》,北京,中華書局,1998
- 周法高,《中國古代語法》(構詞編),臺北,台聯國風出版社,1972
- 周紹珩,〈前提和語義〉,《語言論文集》,北京市語言學會,北京,商務印書館,  
1985, 113-128
- 清 阮元 校刻,《十三經注疏》上下,北京,中華書局,1987
- 何樂士,《左傳虛詞研究》,北京,商務印書館,1989
- 何樂士·敖鏡浩·王克仲·麥梅翹·王海棻,《古代漢語虛詞通釋》,北京,北京出  
版社,1985
- 許世瑛,《論語二十篇句法研究》,臺北,臺灣開明書店,1982
- 黃六平,《漢語文言語法綱要》,香港,中華書局香港分局,1978

### 〈中文提要〉

本文以两种动词短语‘VP-以np’结构和‘以np-VP’结构为讨论重点,通过考察其语义重点的所在与否、‘以’的词性和结构分析、话语中的活用情况等,试图阐明这两种结构的语法意义。

‘VP-以np’结构和‘以np-VP’结构,如“以羊易之”及“易之以羊”,就整体而言,作为一种词序演变过渡期的语言现象,其固有的语法意义必定在相当长的历史时期内存在。表现在具体的话语中,这些语言现象也必定与《孟子》里的“以羊易之”和“易之以羊”一样,为语义指向及脉络这些语言环境的要素所控

制，并且其结构与语义重点也有紧密的联系。

尤其需要指出的是，‘VP-以np’结构中的‘以np’短语，不是作为为VI的补语，而是在VP所产生的行为之前提下，作为一个陈述说明它的述语。‘以np-VP’结构和‘VP-以np’结构只是同一命题的不同表现方式而已，‘以np-VP’结构中的‘以np’是作为状语出现的，而‘VP-以np’结构中的‘以np’应视为述语。

在‘以np-VP’结构和‘VP-以np’结构的肯定式中，VI所产生的动作行为的实现与否，其语义指向有一些模糊，但是其否定式的指向却是明确的。具体而言，在‘VP-以np’结构的否定式—‘VP-不-以np’结构中，VI所产生的行为是已然的行为。只不过是表现在不是‘以np’所提出来的那些行为罢了。而‘不-以np-VP’结构却不这么简单。我们的主张就是如果以‘VP-不-以np’结构中的‘以’字为动词，那么当然亦应以‘VP-以np’结构中的‘以’字为动词。由此看来，它们是一对性质完全相同的肯定式和否定式的结构形式。

‘以np-VP’结构和‘VP-以np’结构在话语里被选择使用的过程和机制完全取决于语境中的语义指向和脉络。它与既存话语中所提出来的行为有着紧密联系并且以之为前提。可以说，在既存话语的提示之下，以哪一部分为前提，是决定‘VP’和‘以np’词序的重要因素。

对话是以说者和听者共知的内容为基点而展开的过程，也许这就是语言能被相互之间顺利地理解从而使对话能够交流下去的基本原理。在这一点上，由‘VP’和‘以np’产生的‘以np-VP’结构和‘VP-以np’结构，也应被视为在这种前提和说明的密切关系中体现出来的语言现象。并且，随着语言演变的大趋势，‘以np-VP’结构的逐渐普及和‘VP-以np’结构的逐渐被淘汰也是基于上述原理而产生的一个必然结果。

在此，我们想强调的是，‘以np-VP’结构中的‘以’字和‘VP-以np’结构中的‘以’字并非具有完全相同的性质。它仍然具有词性变化中所谓变化和本性的两种素性，那些素性所产生的两种词序是能够在一定的时间里并存的。其间它又以主语及述语的成分来重新整合成为另一种表达方式——前提和说明。

주제어: 语义重点, 结构分析, 动词, 述语, 话语, 前提, 说明